

토르소의 침묵과 영혼의 소리

유재길(미술평론가, 홍익대학교수)

정현의 토르소는 말이 없다. 언제나 침묵을 유지한다. 그의 변형된 초상조각이나 상반신 흉상조각에서도 인간의 감정적 표정을 발견하기 힘들다. 슬픔이나 기쁨은 감상자의 판단에 맡긴다. 보는 사람의 마음이 아플 때, 그의 조각은 한없이 슬프게 느껴진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시선이 없는 인체조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불어넣는다. 또한 침묵하는 토르소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마치 영혼의 소리를 듣는 듯하다.

서구 조각의 역사에서 인체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였다. 고대 그리스 이후 전신상이나 토르소, 초상조각 등을 조각가들이 가장 즐겨 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20 세기 추상조각의 등장으로 급작스럽게 몰락의 길을 걷게된다. 점차 조각가들은 인체나 구체적 사물의 형상에서 벗어나 기하학적 선이나 면 구성 등 조형성, 그 자체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추상조각의 등장과 같이 작가들은 실물 오브제를 등장시켜 조각이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느낌이다.

사실 추상조각과 오브제 미술의 등장으로 인간 신체조각은 구태의연하게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몇몇 조각가들은 인간 형상을 새롭게 재현시켜 나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인체조각으로 전통 조각의 맥을 이어나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인간성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정현은 그러한 조각가 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인간 형상을 고집하면서 재현의 영역에 머물고자 한다. 무엇보다 그의 조각은 인간을 모티브로 3 차원의 공간에 구축되는 견고한 볼륨으로 이루어진다. 그의 인체조각은 토르소나 반신상, 흉상조각이 많다. 그가 조각한 인체는 단순한 형태로 축약시킨 형상이다. 대부분 신체의 단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절단된 팔이나 다리, 가슴, 어깨, 심지어 얼굴마저 파괴된 단편들이다. 그는 인체 구조의 완벽한 묘사보다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형태를 왜곡시키고 파괴한다. 결과적으로 그의 인체 조각은 해부학적 내부 골격이나 근육 구조와 거리가 멀다. 감상자는 이같이 인간 신체를 극도로 단순화시키고 단편화된 형상에서 시대적 삶의 진실과 아름다움을 연결시킨다.

이처럼 극도로 단순화시키고 단편화된 인간형상은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자아를 확인하기 위한 고통의 순간들이 얼굴이나 신체에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결코 아름답지 않은 파괴된 형상들이다.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파편만이 남아있다. 왜 작가는 이처럼 비극적인 모습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 대답을 토르소의 침묵을 통해 듣고자 한다.

정현의 조각에서 가장 인상깊은 것은 침묵의 토르소 작품이다. 거친 몸짓이 침묵 속에 묻힌다. 이곳에는 결코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미완성과 같은 거칠고 투박한 외형으로 매끄러운 마무리와 거리가 멀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진실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현대적 삶의 진실된 모습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지 않은가? 그가 조각한 침묵의 토르소는 이와 같은 내면의 세계를 형상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침묵의 토르소와 추상화된 초상조각들은 거칠고 원시적인 표현으로 농축된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진실과 허위를 생각한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말없는 그의 토르소 작품에서 우리는 대답을 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근작에서 보여주는 정현의 인체조각은 3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해 진다. 3 가지 유형은 첫째가 구체()구조의 초상조각이며, 둘째는 수직구조의 토르소로 불안과 긴장감을 더해주고, 셋째는 토르소로 추상화시킨 수평 구조의 구성적 추상조각이다.

첫번째 유형의 구체 구조의 초상조각은 전형적인 인물조각 양식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서 구체 구조는 직사각형의 초상조각을 생각하면 된다. 인간의 얼굴을 모티브로 조각하면서도 정현은 구체적 인물묘사를 피하고 있다. 자유의식이 강한 표현주의 조각과 같다. 이것들은 마치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익명의 초상조각으로 눈·코·입도 명확하지 않은 모습이다. 대부분 얼굴은 파괴된 형상으로 추상조각에 가깝다. 잘려나간 귀와 턱 부분, 유난히 크고 매끄러운 코만이 우뚝 서있기도 한다. 이처럼 단순화되고 파편화된 초상조각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비극적 얼굴을 보는 듯하다.

두번째 유형은 수직 구조의 토르소 조각들이다. 수직 구조의 조각은 3 차원의 공간 속에 견고한 선적(線的) 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 상반신의 웅크린 부분은 견고한 볼륨으로 표현되며, 수직의 선적 구조와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서있는 수직의 토르소 조각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불안하고 허약해 보인다. 특히 머리카락이나 팔다리의 경계선도 없는 가분수의 비례를 가진 수직구조 조각은 그 불안함을 더해준다.

세번째 유형은 수평구조의 추상조각이다. 여기서 추상은 인체를 모티브로 하기 때문에 순수 추상과 거리가 있다. 이같은 모티브가 있는 수평구조의 추상조각은 매우 드물게 제작되지만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수평구조의 조각에서 인체 형태는 더욱 파괴되고 단순화된다. 토르소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면서도 인체의 외적형태와 완전히 결별한다. 수평구조는 불안과

긴장감을 주었던 수직구조와 달리 안정감을 준다. 대지(大地)에 뿌리를 내린 인간을 추상화시킨 작업으로 열려진 공간변화에 중점을 둔다.

한편 조각의 다양한 유형분류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드로잉 작업이다. 정현의 작업장에 들어서면 조각보다 벽면에 가득 찬 드로잉을 보게 된다. 하나의 유형을 구상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드로잉 작업량은 대단하다. 오랜 시간 작가는 흰 종이 위에 인간의 초상을 수없이 반복한다. 조각은 그 중 어느 하나의 결정이다. 드로잉은 콜타르로 매우 자유롭게 그려진다. 머리만 있는 얼굴이 있는가 하면 코만 있기도 하고, 몸통인지 얼굴인지 구별하기 힘든 인간 형상들이 그려진다. 이렇게 많은 드로잉을 보면서 그의 인체조각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수많은 드로잉 작품은 순간적 행위의 우연한 표현들로 초상조각의 외적인 것들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현상의 드로잉을 바탕으로 작가는 진실이 담긴 익명의 현대인간을 조각한다. 그의 작업은 이론을 위한 이론이나 새로운 기법과는 거리가 멀다.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표현이 돋보인다. 흙에서 생명의 샘을 찾듯 작가는 인간의 내면을 중요시하고 그 속에서 영혼의 소리를 남고자한다. 왜곡된 인간의 형상을 통해 진실된 힘을 표현하고자 한다. 아울러 작가의 침묵하는 토르소에서 진정한 시각적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미래의 우리 자화상을 그려본다.